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전남도, 1361억원 투입 친환경농공단지 조성 등 벗짚 환원 등 신규사업 발굴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지인 '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6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민, 농업업 법인 등이 자부담하는 243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1604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올해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확충,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 및 농가 경영 안정,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정적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원 ▲친환경 벼 집적화 인센티브 16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75억원 ▲농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

재 지원 172억원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2억원 등 13개 사업에 737억원이 들어간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경영안정과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48억원 ▲유기·무농약 지속지불금 75억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인증비 지원 97억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왕우렁이 공급 40억원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조성 30억원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11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인프라) 구축 10억원 등 11개 사업에 772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 농업인 의식교육 강화와 함께 ▲국비 지원이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3억원 ▲수도권 향후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5억원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7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

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8억원 등 11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

도양환경 보전 및 지역 증진을 위한 벗짚 환원사업 26억원을 비롯해 ▲난입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2억원 ▲전략품목 육성 지원 3억20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도 펼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유기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도록 판로확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월 초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51%인 3만 5417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2856ha로 전국 인증면적의 61%를 차지, 명실공히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에서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주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개의 황제' 새조개 양식기술 연구 박차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인공 종자 대량 생산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조개의 황제로 불리는 새조개의 수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자 대량 생산에 나선다.

우선 전북 가두리를 활용해 새조개 양식기술을 계속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새조개는 육질이 두툼하고 식감이 좋아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고가에 판매된다. 잠입성 이매패류로 바다 수심 15m 부근의 저질 속에 잠입해 서식하는데,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습성에 따라 적절한 잠입환경이 조성되면 별도의 사료 공급 없이 양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새조개 인공종자를 활용한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육상 상자 유수식 중간 양식 시험을 거쳐, 2022년 해상 용기 수하 시험으로 성패 생산에 성공했다.

2023년에는 전북 가두리를 대상으로 새조개 양

성 특성을 조사했다. 그 해 7월 전남 해역 전북 가두리 수하식 양식시설에 입식한 약 0.6cm 종자는 8월 평균 크기 2.1cm의 중간양성 치패로 성장했다. 이 치패를 활용한 본 양식시험에서 12월까지 5-5.3cm(평균 5.2cm)로 성장했다.

새조개는 1월부터 5월까지 6-8cm 크기로 소비됨에 따라 설 명절 전 6cm 이상 성장을 목표로 관리 중이다.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를 보면 새조개 해상 양식 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새조개 성패 생산 방법에 대한 초기단계 연구가 수행됐지만, 양식기술 보급까지는 양식용 종자 대량 확보체계 구축과 다층수하식 양식시설 개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 기술보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대 30% 할인...남도장터, 설 맞이 할인전

2월 13일까지 진행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푸른 빛, 화룡점정'이라는 주제로 설 기획전을 오는 2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설 기획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위축된 소비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략형 소비자들을 겨냥해 다양한 구성의 설 명절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할인행사는 남도장터 쇼핑몰(<https://jnmall.kr>)에서 진행되며 입점업체의 명절 특가에 최대 20% 할인까지 적용되어 상품별 최대 30% 할인 판매된다. 설 기획전 상품에 한하여 단일 품목 20개 이상 구매 시 대량주문 할인을 통해 전체 금액의 10%(1회당 최대 100만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1월 11일부터 약 한달간 소고기(등심 등 한정상품), 삼겹살 등의 총 22종 상품에 한해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설 기획 상품은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전통 주류 등 380여 개의 품목으로 최신 소비동향을 반영하여 고품격 프리미엄 선물 세트와 가성비 선물세트를 동시에 강화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과일, 가공식품 등 중저가 품목과 더불어 설 명절 인기 상품인 한우·한돈, 전복, 굴비 상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경호 대표이사는 "명절 선물 장만에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설 기획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성들여 준비한 기획전인 만큼 고품질의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해 알차고 실속있는 설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가 나주시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고향 사랑 기부제'와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마중물 역할 톡톡

기부금 143억원 모금...고향사랑 마을 활성화 사업 등 진행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인 2023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이 143억원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혜택 효과로 지난해 12월 초 1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여일 만에 43억원이 추가 모금돼 2023년 143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22개 시군 중 담양군이 22억4400만원, 고흥군 12억2900만원, 나주시 10억67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전남도는 6억32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전남지역이 시행 원년에 기부금 모금액 143억원을 달성한 것은 제도 시행 전에 전남조직 신설, 답례품 선정 등 빈틈없는 준비를 마친 것이 한몫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 다양한 홍보활동, 전남도-시·군,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한몫 했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기부자의 전남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에 화답하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도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기업사업으로 고향사랑 마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

상으로 마을 특색을 반영한 체험 상품이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목표는 기업사업으로 보조종료야 동 대상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사업을, 나주시는 100원 마을 공동행태 운영 사업을, 담양군은 거동 불편 어르신 병행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사업을, 보성군은 무장애 경사로 설치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소멸 극복 원년을 선포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옥외광고업무평가 행안부장관 표창

클린존 운영 교통사고 감소 성과 등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옥외광고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옥외광고 업무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협업 및 홍보, 현수막 재활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지정·운영 ▲민·관이 함께한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환경정비와 연계한 현수막 재활용 전략사업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클린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23개 지점을 지정,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

물을 줄이는 한편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클린존 내 불법광고물 총 5만6154건을 정비했다. 불법정당현수막 설치 건수 약 11% 가량이 줄어들고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현수막을 재활용한 물고기 모양의 자루를 제작하고 해양·수변 등의 환경정비와 연계해 새롭게 추진한 '현수막 재활용 전략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동참했다. 총 5만460장의 현수막을 재활용해 현수막 폐기(소각)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소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섰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클린존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옥외광고 분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